

전남도, 지역특화형 비자 전환 우수 외국인 유치

‘지역우수인재’ 확대·‘지역특화동포’ 인원 제한 없어 9월20일까지...가족 초청·배우자 취업 등 특례 다양

전남도가 9월20일까지 지역특화형 비자 전환 사업에 참여할 외국인 모집에 나서는 등 우수 외국인 유치를 시도를 걸었다. 지역특화형 비자 전환 사업은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우수 외국인과 외국 국적 동포에게 지역특화비자(F-2-R, F-4-R)를 발급하고 특례를 제공해 인구 감소지역

에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전남도는 올해 모집 인원을 전년 시범사업보다 2배 이상 늘렸으며 모집 유형은 지역 우수 인재와 지역특화 동포로 나뉜다. 지역 우수 인재 유형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 이상의 소득 또는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력을 갖춘 외국인이 5년 이상 모집 지

역에 거주하며 취업 또는 창업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추가로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 취득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지역 특화 동포 유형은 모집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하거나 2년 이상 거주를 조건으로 비인구 감소지역이나 해외에서 모집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60세 미만 외국 국적 동포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 전남에선 영암·해남·고흥·장흥·곡성·보성군이 사업에 참여한다. 지역 우수 인재는 지난해보다 2배 늘어난 총 425명을 모집한다. 지역별 배정 인원은 영암 20

명, 해남 60명, 고흥 35명, 장흥 30명, 곡성 20명, 보성 30명이다. 지역 특화 동포는 별도 인원 제한 없이 모집한다. 지역특화비자 전환을 바라는 외국인은 사업 지역 군청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요건, 제출 서류, 취업 허용 업종 등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 누리집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역특화형 비자 전환 외국인에게는 가족 초청, 배우자 취업 등 다양한 특례가 주어진다. 지역 우수 인재(F-2-R) 비자 전환 시 장기 체류는 물론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동반가족으로 초

청할 수 있다. 지역 특화 동포(F-4-R) 비자의 경우 일반 재외동포(F-4) 비자보다 취업 범위가 확대되며, 영주자격 요건이 완화되는 등 다양한 특례가 있다. 특히 2개 비자 모두 초청 배우자도 취업이 가능한 장점이 있어 지역 정착이 한결 수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가정 전남도 이민·외국인 종합지원 센터를 구축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신청자 일 자리 매칭 등 사업 운영을 총괄하고 외국인 유입부터 정착까지 원스톱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재정 기자

“북구에서 기적의 1석 당선시켜 달라”

윤희숙 진보당 대표 광주 찾아 윤민호 후보 지지 호소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는 1일 광주를 찾아 “광주에서 기적의 1석을 만들어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윤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보당의 22대 총선 목표는 ‘윤석열 정권 심판’과 5석 이상 당선으로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새로운 대표 진보 정당으로 인정받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진보당은 고심 끝에 더불어민주당과 연합해 비례연합정당을 창당하고 지역구에서는 64명의 후보가 응모하는 결단을 내렸다”며 “5석 이상 당선으로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진보정치를

복원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표는 “이미 부산에서는 노정현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따돌리고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진보 정치 1번지 울산에서는 윤종오 전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후보와 1대1 구도로 경쟁하고 있다”며 “진보의 바람을 광주에서도 만들어 달라. 광주 8석 중 딱 1석, 북구를 윤민호 후보를 당선시켜 주시길 간곡히 호소 드린다”고 덧붙였다. 윤 대표는 “광주 진보당 1석은 노동자를 살리고, 광주의 자존심을 살리고, 대한민국 정치도 살리는 1석 3조, 광주시민의 가장 위대한 선택이

될 것”이라며 “진보당을 대표 진보정당,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성장시켜 달라”고 거듭 지지를 호소했다. 진보당은 광주 8곳 선거구 중 동남갑 지역을 제외한 7곳에서 후보가 출마했지만 지난 12일 북구을 선거구를 전략선거구로 결정하고 13일 오후부터 6명의 후보 선거캠프가 최소한의 인원만 남기고 윤민호 후보(북구을)를 집중 지원하고 있다. /박선경 기자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가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제22대 총선 지지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진보당 광주시당 제공>

강은미 “부적격자 양부남 후보 사퇴해야”

“한남동 건물 두 아들에 증여...전형적인 부모찬스”

녹색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후보(광주 서구을)가 20대 두 아들에게 한남동 단독주택을 증여한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후보를 맹비난하며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사진) 강 후보는 1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세 30억원짜리 한남동 건물을 두 아들에게 증여하고, 증여세를 대납한 행위는 전형적인 ‘부모찬스’라며 “양 후보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증여했다고 해명했지만 증여세 대납에 관해서는 설명이 부족하다. 대납한 증여세에 대해 명쾌하게 해명되지 않으면 국민을 대신해 양 후보를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 후보는 “불확실한 서울 발령 등의 상황과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부동산을 구매한 점은 부동산 투기 목적임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1가구 1주택 정책 기조는 주택을 팔라는 말이지 증여는 아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자녀에게 증여한 시점도 문제”라며 “개발구역의 땅값이 치솟기 전에 증여를 해 세금을 가장 적게 낼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강 후보는 “소득 한 푼 없는 20대 아들을 30억 원짜리 건물주로 만들고, 전세사기범을 변호하



고, 특활비를 나눠 먹는 후보는 평범한 시민의 심정을 알 수 없다”며 “광주시민을 대표 할 자격이 없다”고 직격했다. 이와 함께 강 후보는 이날 양 후보가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도 광주의 1천억원대 전세사기범 변호를 맡은 점, 코인사기범을 변호해 수사 무마 대가로 수사를 받았던 점, 검사장 시절 특수활동비를 나눠 먹기한 이력들을 설명하며 “양 후보는 공정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도덕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강 후보는 “양 후보는 더 이상 광주 시민을 부끄럽게 하지 말고 당장 후보직을 사퇴하고, 광주시민에게 사죄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선경 기자

규정 위반 ‘정당 현수막’ 1천330건 정비

도·시·군, 3차례 합동 점검

전남도는 1일 “지난 1월12일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하는 개정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됨에 따라 3월15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정당 현수막 설치 실태를 점검, 총 1천330건의 법령 위반 현수막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3차에 걸친 점검 결과, 1차(1월26일-2월8일) 77건, 2차(2월13-29일) 375건, 3차(3월1-15일) 179건을 정비했다. 3차 점검의 경우 1차 점검 대비 규정 위반 정당 현수막이 76.9%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으로는 기간 위반(15일)이 837건(62.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수막 높이 등 설치 방법 위반 207건(15.5%), 어린이 보호구역 등 금지 장소 위반 206건(15.4%) 순이다. 민원 건수는 총 207건으로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가 72건, 방문 접수 56건 등이다. 민원 건수

도 1차 점검 기간(140건)보다 3차 점검(33건)에서 76.4% 가량 줄었다. 이처럼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 규정 위반 정당 현수막과 관련 민원이 크게 줄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설치 기간 이후 자진 철거하지 않거나 신규 정당의 경우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전남도는 개선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각 정당의 지역위원회 등에 관련 규정을 안내할 방침이다. 주요 내용은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설치 금지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높이 2.5m 이상 설치 ▲10㎡ 이내 규격 제작 ▲정당명·연락처·계시 기간(15일)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는 5cm 이상 ▲다른 현수막과 상호, 안전 표지를 가리지 않도록 설치 등이다. /양서원 기자